

Korean Literary Reader(1965)에 대한 몇 가지 물음 *Some Questions about Korean Literary Reader(1965)*

김 성 철
목포해양대학교

Kim, sungchul
Mokpo National Maritime Univ.

요약

본 발표문은 서두수의 *Korean Literary Reader(1965)*를 소개하고 영어를 중심으로 쓰인 한국문학 교과서로서의 면모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로 쓰인’이 아닌 ‘영어를 중심으로 쓰인’이라는 수식을 붙인 이유는 한국문학에 대한 개략적인 역사는 영어로 서술되었지만, 한글로 된 원문을 수록한 본문에서는 어렵거나 생소한 단어만 영어로 주석을 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히 영어로만 서술된 한국문학 교과서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Korean Literary Reader(1965)*를 통해 초창기 미국-한국문학 교과서의 형태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저자 서두수의 행적 안에서 미국에서 이 책을 발간한 목적 중 몇 가지를 유추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친다.

1. 저자 서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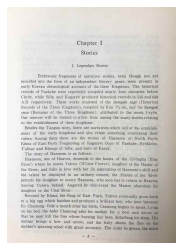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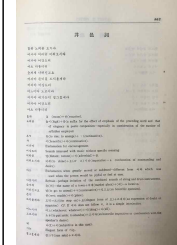
서두수(徐斗銖, Doo Soo Shu ; 1907~1994)는 경성제국대학에서 국문학(지금의 일문학)을 전공한 이후, 진남포 상공학교, 이화여전 등에서 국문학(지금의 일문학)을 가르쳤다. 해방 후에는 국문학(지금의 국문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연희전문과 경성대학 등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1949년에 미국 콜럼비아 대학으로 유학한 이후 하버드, 워싱턴 대학교 등에서 한국문학과 관련된 수업을 담당하였다.[1] 일문학으로부터 한국문학으로의 전환은 생경한 사건일 수 있겠지만, 서두수는 일문학을 전공하면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판소리 연구에서 잘 알려져 있는, 「妄論 春香歌·春香傳」(文章, vol.1, no.3, 1939)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일제시대에 국문학(지금의 일문학)을 전공한 자로서, 친일과 관련된 시선을 피할 수는 없다. 서두수는 몇 편의 글로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였다.[2] 일문학을 전공한 교육자였던 서두수는 해방 이후, 한국문학으로 전공을 선회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문학을 전파하려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게 된다. 본 발표문에서는 미국에서 활동한 서두수의 이러한 활동의 근거가 되는 *Korean Literary Reader(1965)*를 소개하고 몇 가지 문제적인 지점을 통해 이 자료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Korean Literary Reader(1965)*는 정우봉, “해의 한국고전문학 교재 현황과 편찬방향”(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제2차 국제학술대회, 2007. 7., 157-169)에서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2. *Korean Literary Reader(1965)*의 구성 방식

*Korean Literary Reader(1965)*는 총 908쪽으로 구성된 영어를 중심으로 쓰인 한국문학 교과서이다. 부제는 “A Short History of Korean Literature”라고 되어 있다. 이 책의 출판과 관련해 “Prepared under the Program of the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for Research and Studies in Uralic and Altaic Languages, pursuant to a contract between the ACLS and the U.S. Office of Education”이라고 밝히고 있어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단, 출판은 한국의 동아 출판사에서 담당했다.

*Korean Literary Reader(1965)*는 Preface, Explanatory Note, Part I: A Short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Part II: Stories, Part III: Poetry, Part IV: Drama, INDEX로 구분되어 있다. Part I은 다시 Stories, Poetry, Drama, Appendix로 구분되어 이후 수록된 원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한국문학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과 서사, 시에서 활용된 영어 표기 방식은 아래의 사진과 같다.

| 한국 문학 | 서사 | 시 |
|--|---|---|
|  |  |  |

▶▶ 그림 1. *Korean Literary Reader(1965)*의 본문 구성 방식

한국문학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모두 영어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서사와 시에서 영어는 단어 설명을 위한 주석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서사는 몇 개의 단어 위주로, 시는 거의 모든 부분에 영어로 설명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량이 긴 한국의 서사물 모두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와 관련된 주석에 비해서 너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특히 가장 자세한 주석이 달린 「龍飛御天歌」는 거의 모든 어구에 주석이 달려있어서 차이가 크다.

3. *Korean Literary Reader(1965)*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점

*Korean Literary Reader(1965)*의 Preface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With this purpose in mind, the author has formed this book around his own personal experiences with the needs and interest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Korean Literary Reader(1965)*를 미국의 한국문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을 염두에 둔 ‘교과서’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만약, 이 자료가 실제 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활용된 사실이 있다면, 한국인이 서술한 초창기 한국문학의 영어 교재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대상이 한국 유학생에 한정된다고 할 지라도 말이다.

비슷한 시기, 한국인에 의해 영어로 서술된 또 다른 한국문학 관련 저서가 있다. *Korean Literature ; topics and themes(1965)*는 현재까지 영어권에서 활약한 한국문학 연구자로 이름이 알려진 Peter H. Lee의 저서이다. 서두수와 미국에서 동시대에 한국문학을 담당하는 교수였다. 다음의 Preface 일부는 서두수와 Peter H. Lee가 함께 작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Some of the translation Quoted in Part I are the work of students in my Seminar in Korean (중략) others are by Dr. Peter H. Lee of the University in Hawaii.” 서두수는 몇 개의 작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업-단어 번역-을 Peter H. Lee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Korean Literary Reader(1965)*와 Peter H. Lee의 영향 관계는 Peter H. Lee의 저서 *Songs of Flying Dragons: A Critical Reading*(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n Literary Reader(1965)*에서 가장 자세하게 영어 주석이 달린 「龍飛御天歌」의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Songs of Flying Dragons: A Critical Reading*이 저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추정은 차후 비교를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문제적인 지점은 *Korean Literary Reader(1965)*의 Appendix 중 두 편의 번역문에서 발견된다. ‘Declaration of Independence by Korean Students in Japan(February 1919)’와 ‘Offici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March 1919)’를 수록했다는 것과 일제강점기 친일적인 글을 남겼다는 사실에서 서두수의 상충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일제시대 국문학(지금의 일문학)을 전공하고 일제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썼던 서두수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복을 입고 생활하며 다른 장소를 방문할 때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며 살았다고 한다.[3] 일제시대의 국문학(지금의 일문학) 연구, 해방 후 국문학 연구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미국으로의 유학 생활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그릇된 자신의 선택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기에 두 편의 <독립선언서>를 미국 권역에 있는 한국문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번역해 놓음으로써, 자신의 행적에 대한 세탁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을까.

■ 참고 문헌 ■

- [1] 박광현,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 - 한 식민지 ‘국문학자’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4집, pp.365-368, 2009.
- [2] 김영심, “식민지조선에 있어서의 源氏物語”, 일본연구, 21권, pp. 29-50, 2003.
- [3] 신호범, 기적을 이룬 꿈, 삼성문화사, 서울, 2006.